

___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와 대화 「 광복 100주년 국민동행 」 공론마당 II

___세대 젠더 의제 지정 토론

___우리 안의 빛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___장혜영 21대 국회의원 (정의당)

___들어가며

___광복 100주년을 맞이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디로 함께 나아가야 할지 모색하는 ‘국민동행’ 토론에 세대와 젠더 부문 토론자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복 100주년까지 약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을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 이같은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무척 뜻깊습니다.

___1945년 광복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시작을 비추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광복은 그것이 사건으로 도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며 힘을 발휘하는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미래상은 일제 강점기의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밝혀준 빛입니다. 당대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추구할 빛을 상상하고 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의 뜻을 기리는 가장 의미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빛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___발제에 대한 독해: 세계적 흐름으로서의 ‘청년의 보수화’와 ‘10대의 극우화’, 집권 세력에 대한 회의

___발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발제는 우선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를 “압축 성장”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압축이란 “유럽의 60년”과 비교한 평가입니다. 발제문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68 혁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을 포함한 소위 근대 국가들에서 일어난 ‘68세대의 기득권화’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진보세력의 약화’, 동구권의 붕괴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폐해를 소략하며 이를 ‘유럽의 60년’이라 규정합니다. “기계적인 시각이지만 유럽의 68이후 60년간 겪은 일련의 변화를 우리는 87년 이후 40년간 겪고 있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흐름들이 일치한다.” 이 관점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구 선진국에서 먼저 일어난 세계적 흐름에 합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___이같은 관점에서 발제문은 청년들이 진보 계열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현상을 ‘청년의 보수화’라고 규정합니다. “청년의 보수화는 우리에게도 벌어진 일인데, 다만 젠더라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면서 양상이 좀 달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남성의 보수화가 먼저 벌어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젠더 투표 현상’, 즉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20대 여성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것으로 지난 10년간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발제의 시각입니다.

— 이러한 전제 위에 발제의 결론은 ‘앞으로 생겨날 변화들’과 이를 대비한 방침으로 향합니다. 앞으로의 20대를 보기 위해 현재의 10대에 주목해야 하고, 현재 10대들의 ‘반 노무현’과 ‘혐중’은 젠더 편차가 없으며, “아마 유럽식 극우정당이 한국에 존재했다면, 지난 유럽 의회 선거와 유사한 폭발적 반응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미래”라고 예측합니다. 다른 미래의 가능성에는 회의적입니다. “10대의 극우화는 이미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지금 해소한다고 해소할 성격의 변화가 아니다.” 그 핵심 이유는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 발제는 이를 ‘선진국 트렌드’로 받아들이며 “토론하고 타협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 즉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 민주당 안 찍는다고 ‘청년의 보수화’ 논하기 전에 양당의 가치 상실을 말해야

— 우선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가 광범위하게 성공을 거두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적 필연성을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각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 이전 세대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복합 위기 시대의 타임라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위기는 비슷해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유의 차이점이 존재하며, 그렇기에 위기에 맞서나가는 방식 또한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우리에게 답인 것이 다른 나라들에는 답이 아닐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엇이 앞에 있고 무엇이 뒤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자기 앞의 어둠을 헤쳐나갈 자신의 빛을 찾아 분투하고 있습니다.

— 이런 관점에서 저는 ‘청년의 보수화’ ‘10대의 극우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의미가 풍화된 언어가 일으키는 착시의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인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민주당을 찍으면 진보, 국민의힘을 찍으면 보수’. 이걸 뒤집으면 ‘민주당을 안 찍으면 보수’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청년의 보수화’가 등장합니다.

—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칭하는 ‘보수’ ‘진보’라는 단어는 가치의 언어가 아닌 지 오래입니다. 두 정당의 정책적 노선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한없이 좁습니다. 양당 모두가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재벌대기업을 상대로 막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방산 수출을 지원합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보완입법에

무관심합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우리 진영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 진영의 잘못에는 혐오와 조롱을 퍼붓습니다. 싸우기는 끝없이 싸웁니다. 지금도 재선거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싸우지만, 가치투쟁보다 권력투쟁의 성격이 짙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의미하는 ‘진보’와 국민의힘을 의미하는 ‘보수’는 특정한 가치나 이념에 입각한 정책적 노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 진영을 지칭하는 발음기호에 가깝습니다.

— 그런데 ‘청년이 보수화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단어는 가치와 의미로 차오릅니다. 그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상대 정당을 지지했을 뿐인데 온갖 보수적 가치의 담지자로서의 청년이 호명되기 시작합니다. 청년 세대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은 ‘보수 표심으로 표상된 청년’의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가, 특히 남성 청년들의 지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 청년의 보수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 지금 청년의 보수화를 이야기하기 앞서 우리가 충분히 말해야 하는 것은 비전을 잃은 586세대, 아니 686세대의 방향입니다. 거약을 무찌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절대적인 빛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힘을 잃은 세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청년은 보수이거나 극우라고 쉽게 단정하는 세대. 서울 교육감은 2010년부터 16년째 계속 ‘진보 교육감’ 시대를 이어왔는데, 도대체 그 16년간 학교를 다닌 청소년들이 왜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세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출범시킨 국가교육위원회의 장이 특정 정치인의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 힘 있는 세대의 방향과 표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청년의 보수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면의 유의미한 전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젠더 문제’는 시간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것이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 발제문은 젠더보다는 세대,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논지를 풀어나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생겨난 대표적인 문제가 젠더 문제다.” 경제 성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제도와 문화가 이 속도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 이는 주류 정치학적 관점에서 젠더를 논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젠더 문제’, 즉 성차별의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변화는 권력 차이로 인해 오랫동안 말할 수 없던 문제를 이제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마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사람들이(어떤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 마치 문제인 것 같은 인식이 생겨납니다.

___그 연장선상에서 ‘젠더 문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싶습니다. ‘젠더’는 문제가 아닙니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별과 달리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별 인식이라는 의미의 ‘젠더’라는 개념이 주창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성별 이분법과 가부장제, 이성애 중심주의라는 문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강요된 문화 바깥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젠더 문제’라는 표현은 이러한 맥락을 살리기보다, 뭔가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문제는 고착된 성차별과 성별규범인데, 마치 그와 별개로 ‘젠더’라는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___남성이 아닌 여성, 그리고 그 외의 성별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성별규범을 넘어, 성별을 막론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공동체에 소속되어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성평등 담론의 공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란 한 개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___성평등, 젠더평등이란 여러 정책의 한 부문이 아니라 삶과 사회 전체를 재규정하는 하나의 관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말이 유명하지만, 저는 성평등은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이 광복 100주년의 새로운 상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___나가며

___광복 직후에 쓰여진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러나 글의 전문에 비추어보면 이는 문화에 대한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___“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 투쟁의 정신을 길렀었거니와, 적은 이미 물러 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버리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춘풍이 태탕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되고 그러한 정신의 교육으로 영속될 것이다.”

—“최고의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각원(各員)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우리 말에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세대와 젠더 관점에서 광복 100주년을 준비하는 토론을 열어가는 마음가짐을 저는 바로 이 글에서 찾고 싶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높은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힘입니다. ‘압축 성장’의 시간 속에서 지금의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와 젠더가 가진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화합과 공존의 빛을 함께 어깨동무하고 찾아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